

2016년 8월 1일 새벽말씀(편집본)

자, 모두들 기도 끝났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 이제 체질이 배고, 그리고 그야말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자동기계가 되어서 시간이 되면 딱딱 움직이는 여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신입생 중에도 끝끝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새벽예배만 참석해도 건강 좋아지고, 게으른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게으른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 없애는 약이 있습니까? 행동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가장 선생님이 깊은 것을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뭐가 하면,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그렇지요?

죄에 대해서 잠언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과실을 범하고 죄를 범했는데 서로 회개하지 않고, 서로 잘못을 인정치 않아서 싸우다가 서로 이혼하잖아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딱 그것 한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쫓겨납니다. 제일 커요.

죄의 문제! 죄!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 성공하는 사람이 역사에 남아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가정의 쓰레기, 자기 몸의 때, 병 이런 것을 해결치 않으면 수한 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가정에 계속 쌓아 놓아 봐요. 방 쓰레기는 방에다 쌓아놓고, 부엌 쓰레기는 부엌에 쌓아놓고, 그리고 응접실 쓰레기는 응접실에 쌓아놓고 그리고 빨래 등 모든 생활의 더러운 것을 다 집에다 계속 쌓아 놓아 봐요. 계속 쌓아 놓아 보세요. 10년 20년 쌓아 놓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썩어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썩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도 안 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이 <회개>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서 받아줬다!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회개에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는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 사람은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두 번째,

2. 메시아를 믿지 않음이 죄다.

왜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죄냐?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지 못함이 죄다. 빨래 안 함이 더러운 것이다. 때를 믿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때는 밀면 속이 시원합니다. 머리 감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1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머리 감고 목욕해 봐요. 얼마나 좋은가.

그와 같이 평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며 땀내고 와서 목욕할 때, 사우나 갔을 때.

이와 같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그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시니까.

3. 모르는 것이 죄다.

이 세상이 너무 모르고 삽니다. 너무 모르고 삽니다. 무지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못 살고, 몰라서 일 저지르고, 몰라서 죽고, 몰라서 병들고.

그 다음, 네 번째

4. 죄의 가짓수는 수백만 가지이다. 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다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5. 신앙적으로 볼 때는 원죄, 연대죄, 유전죄, 자범죄가 있다.

설명을 안 해도 알지요?

6.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형벌이 대개 있다.

형벌을 받아봐야 '죄가 무섭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탕감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해도 그 나름대로 형벌은 받습니다. 이미 죄짓고 회개할 때까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봤지요? 너무 괴롭고 괴로운 것.

그리고 회개했을 때 또 공적을 쏟으면서 짓값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을 졌으면 지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용서했다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마음이 금방 막 돌아오지 않는다. 그 대가를 해야만 돌아온다.

8. 죄를 몰라서 회개 못한다. 컷값으로 고통을 받아도 모르고 있다.

사람이 죄를 몰라서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알려주었으니
까 이제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들어봐요.

9. 죄는 몸의 병과 같이 생각하고 즉시 치료하듯이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죄가 병이 들립니다.

계속 들어봐요.

10.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게 된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아라.

병을 심상히 여기면 매일 병으로 앓다가 죽는다. 병으로 앓다가 시름시름하게 된다. 심상히
여기지 마요.

11.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들어온다. 찌꺼분하고 더러운 곳이 있으니 꼭 날과
리가 모이고 모기가 모이더라. 모기가 막 생겨 버린다.

밖에서 오는 줄 알고 못 오게끔 모기장을 쳐놔었습니다. 그러나 해 보니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모기장 안에 모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
데, 자체에서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체에 사탄과 마귀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생깁니
다.

죄를 짓지 말아라. 사탄 마귀가 와서 괴롭힌다. 더 괴롭힌다.

죄를 지어서 괴로운데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 용서받아야 됩니다.

12.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누구한테 회개할 줄을 모른다.

결혼했을 때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남편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누구한테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근본자입니다. 죄
의 근본자.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앞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찌서 하
나님께 회개를 하지? 우리가 죄 지으면?

13.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인간을 창조하시
고, 만물을 주시고, 의롭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길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죽음의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났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 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14. 자기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자를 믿지 않고 사랑치 않음도 큰 죄가 아니냐. 결혼했을 때 자기 남편 안 믿고 부인 안 믿으면 죄가 아니냐. 남편 사랑치 않고 부인 사랑치 않으면 죄가 아니냐.

‘그가 보낸 자’를 사랑치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음이 죄가 아니냐.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5.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만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게 구원이다.

16. 사망에서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죽고, 사망 세계의 마귀와 사탄의 세계에서 그냥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17.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행한 자만이 사망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자만.

18.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왜 하나님께 회개하는가를 모른다. 의를 행치 않음이며, 그를 믿지 않음이라. 그를 믿지 않음이란 구원자를 믿지 않음이다.

19. 인간의 죄는 거의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거의 죄를 지은 것이 많습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은 것이 많지만 근본의 큰 뿌리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20.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낳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낳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함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자녀가 어렸을 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손이 가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부모에게 잘못을 한 것입니다.

이웃 아저씨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 아저씨에게 잘못된 것도 따로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잘못을 했으면 부모한테 잘못된 것입니다. 왜? 부모가

다 해 주었으니까. 낳아 주고, 길러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이지가지를 다 해 주었으니까 못 하면 부모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부모가 때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공부 못하면 매일 부모에게 혼납니다. 다 해 주었는데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21. 하나님께 모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도 주어 살게 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선 하라고 시대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믿으라고 해 주고 각종각색으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죄를 회개하라. 없애라. 심판 받는다. 큰일 난다. 저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공적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의로움을 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 비유를 들어 말할진대, 결혼을 해서 한 사랑을 받고 먹고 입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남편이 잘못하면 여자에게 죄이고, 여자가 잘못하면 남편에게 죄이고.

왜? 그렇게 해 주었는데 못하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못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24.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형벌 받고, 또 형벌이 끝나고 공적을 세우면 복을 받는 것이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받을 복을 못 받는다.

읽어주고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25. 어떤 것은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각각 다르니까. 죄의 가짓수가 수백 가지이니까. 용서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버리고 끝나는 것이 있고, 원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공적만 세우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앞에도 나왔지만 탕감 받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면 탕감 받습니다.

26. 인간이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까지 형벌로 심적 고통, 육적 각종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탕감, 형벌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형벌이 끝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공적을 꼭 세워야 됩니다.

27. 어떤 죄는 회개했어도 그 형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벗어난다고 생각해야 된다.

29. 어떤 죄는 형벌 받으면 공적을 세우면서 자꾸 벗어난다.

공적을 세워야 벗어납니다. 공적 세우면서. 그러니 전도를 하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관리하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지은 것도 돈으로 때우는 것이 있고, 몸으로 때우는 것이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을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같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럭저럭하면 안 됩니다.

애인시대라고 해도 반드시 무섭게 받을 것은 받고, 혼날 것은 혼나야 떳떳한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산에서 기도할 때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추위로 견디게 만들고, 냉수 목욕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복직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30.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해야만 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죄지은 것을 회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적되면 안 됩니다.

계속 누적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화끈하게 회개하고,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 다니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두고 지켜보라니까요.” 이렇게 화끈하게 해 주면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무섭게 고쳐졌구먼. 화복 전환이 되었구먼.” 그런다는 것입니다.

32. 의인은 인생을 성공한다. 죄를 안 짓고 착해 봐요. 의인이 성공합니다.

33. 세상에 의인은 없다.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다.

회개해서 의인된다고 했습니다.

34. 자기 죄를 하나님께, 메시아 앞에 회개한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된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35.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 사탄에게 자유를 얻은 자다.

사탄이 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딱 잡고 있습니다.

36. 인간이 병에서 해결된 자, 건강하게 고통 없이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

나. 죄를 해결한 자, 죄의 고통을 벗어나서 죄의 고통을 받지 않고 살 때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37.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 청산해 버리면 사망, 사탄들이 힐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죄 때문에 힐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돼서 배 아파서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잘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38.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사소한 죄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만큼 해 주었는데 그만큼 못하면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입니다. 실례를 한 것이고, 폐를 끼친 것입니다. 나아가서 과실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히 해 주었는데,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과실을 범한 것입니다. 이제 용서해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39. 해 준 만큼 못한 것이 죄다.

40. 하나님께 해 준 만큼 못한 것이 죄다. 형제한테 해 준 만큼 못한 것이 죄다.

41. 메시아가 해 준 만큼 못한 것도 죄다.

42. 가축이 주인들이 해 준 만큼 못 할 때에 주인 앞에 죄가 된다.

43. 주인이 해 준 만큼, 수고한 만큼 과일을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해 준 만큼 열매를 안 열매를 안 맺으니까. 주인이 수고했는데.

44.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 준 만큼, 수고한 만큼 이에 해당되게 하나님께 못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해 주셨는가 여러분은 모릅니까?

45.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도,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다. 해 준 만큼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다.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말만 하지 말고.

46. 하나님 앞의 죄와 인간 앞의 죄를 청산해야 된다. 이는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받을 복을 못 받으면 안 된다.

47.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 수천

가지 법을 주었으니 이 법을 어기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48.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라도 지켜주게 하신다. 오히려 해를 주지 않고 복을 주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50.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사탄과 악한 사람들이 그 죄보다 10배 100배 더 고통을 준다.

죄 지은 것보다 더, 사탄들이 “요 때다.” 하고 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 버리면 끝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 버린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51.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탄이 자기 앞에 죄를 지은 것같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52. 죄를 지으면 죄를 진 사람은 막 죄인처럼 끌고 다니잖아요. 사탄들이 이리 저리 막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씻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53.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자꾸 힐문을 해요.

“너는 죄 지었다. 죄 지었다.” 합니다. 용서받으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을 다스려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사탄을 다스리고 사탄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면 사탄을 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그렇게 주권이 막 주어지는 것입니다.

54. 죄를 지으면 사탄을 못 다스린다. 죄 지은 사람은 사탄을 못 다스립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사탄을 다스릴 수 있다.

55. 의인은 사탄을 다스린다.

56. 하나님과 일체, 주와 함께 일체, 사랑하고 뜻대로 살면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지어진다.

57.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가 정죄하랴.

정죄 한다면 그가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58. 사람들은 자기 앞이 어떻게 될까,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한다.

궁금하지요? 인생 어떻게 살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궁금해하지 말고 자기 앞날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기 앞날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좀 더 깊이 내다보고, 앞날을 크게 내다봐라.

자기 앞날을 큰 것을 한 번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저 꼬트머리까지. 지옥이냐, 천국이냐. 앞날에. 아주 쇼크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번 잠언은 중요한 잠언입니다. 지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9. 음식이 썩는 것과 싱싱한 것을 같이 놓아두고, 쓰레기와 같이 살면 못 살지 않습니까? 왜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깨끗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을 안 만들었어도 누구든지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썩는 것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같이 방에다 놓고 살아야지.

이래서 하나님은 좋은 세계 좋게 살라고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쓰레기는 거기에다 버리자. 썩는 것은 거기에 버리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인간과 더불어 전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썩는 놈은 거기로 가는 것이다. 썩지 않은 사람은 이리로 오고,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이리로 오고, 악하고 썩게 사는 사람은 저리로 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돼서 일이 시작되었을 때 결국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잠언은 굉장히 깊니다. 한 장이나 됩니다.

60. 지옥은 인간 스스로 행위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갖다 집어넣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너희들이 가는 것이다. 썩으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싱싱하면 알곡이 돼서 주인집으로 가는 것이고.

61.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감옥에 가는 것도 법관이 끌어다가 넣는 것이 아니다. 법관은 법을 범한 사람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이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막 넣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62.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서운 것을 겪고, 의롭게 살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죄짓지 말라고 한 것을 깨닫고 보람을 느끼며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깨달으라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공적이 있게, 능력 있게, 권력 있게, 권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익을 내야 됩니다.

63. 죄가 없는 자는 천국의 삶이 일어나고,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의 삶이 일어난다.

64. 하나님 주권을 떠남이 죄가 되지 않겠냐. 주권 벗어나면 죽었다고 합니다.

65.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그 보낸 메시아와 일체 되어 살 때는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자꾸 벗어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와야 하니까요.

66. 죄는 인간을 영육으로 병들게 한다. 죄는 영육을 병들게 합니다. 죄 지으면 육적 병, 영적 병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67. 죄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케 하고, 많이 떨어지게 만든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 지으면 자꾸 가치가 상실됩니다. 가치 상실을 느꼈지요?

68. 누구든지 죄를 지을수록 자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죄 지으면 가치 발휘를 못 하게 됩니다. 모두 겪어 봤잖아. 종교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69. 하나님과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도 큰 죄이다.

70. 죄를 자기를 해하는 원수같이 멀리 하라. 근신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자기를 해하는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자기 원수같이, 우리를 해하는 잡초같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안 지으면 안 지으니까. 안 지으면 안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번 잠언까지 끝났습니다. 이런 잠언을 받을 때 약 2시간에서 3시간 막 받습

니다. 계속 무릎 꿇고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리라.”하신 대로 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가짓수가 수백만 가지인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 못하고 핵심적인 것만 대충 했사오니, 그 중에 다 들었으니 이를 듣고 깨달아 죄에서 벗어나고 석방되게 해 주시고, 마귀 귀신이 이들 끌고 다니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약권을 벗어나서 성약역사 앞에 왔으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의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자기 애인이 죄짓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죄에서 석방되고, 사람들의 힐문에서 석방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직하고 그리고 탕감을 받더라도 죄에서 모두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죄짓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가니까.

성령께서 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동시켜서 회개하게 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약속을 받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사탄을 다스리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힐문하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죄지은 사람을 죽이려면 죽여라.”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다 자기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사랑과 공의로 더해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